

4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가이트너 효과’ 뉴욕 반등	21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실적 악재를 딛고 일제히 반등했음. 주요 지수는 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8,000선에 바짝 다가섰음. 하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는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음. 이후 내내 상승폭을 넓혀 일일 최고점 수준에서 마침표를 찍었음.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의회 증언을 통해 "대다수의 미국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전날 촉발됐던 금융권 손실 우려를 진정시켰고 이에 따라 금융주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969.56으로 전일대비 127.83포인트(1.63%) 상승했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43.85로 35.64포인트(2.22%) 올랐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850.08로 17.69포인트(2.13%) 전진했음.
금융주 반등..가이트너 발언 영향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대다수의 미국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가이트너 장관은 정부가 금융권 구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는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7,000억달러 가운데 은행권에 지원 가능한 자금이 1,350억달러 남아있다는 설명임.
유가 소폭 반등	국제 유가는 증시 반등과 더불어 소폭 상승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63센트(1.4%) 오른 46.51달러로 마쳤음.
한총리 "한국 경제 내년 3-4% 성장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18-20일 독일을 방문한 한 총리는 21일자 독일 경제지 한텔스블라트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2분기에는 전 분기에 비해, 4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4%의 성장을 보여 위기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음. 한 총리는 또 "이번 경제위기가 동북아 국가들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경제적으로 통합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블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제목	주요 내용
채권펀드 7새째 자금 유입..국내주식펀드는 감소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대비 947억원 줄어든 139조5,089억원을 기록. 국내 주식형은 977억원 감소한 84조8,658억원, 해외주식형은 30억원 증가한 54조6,431억원을 기록했다. 채권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대비 1,300억원 증가한 34조9,540억원을 기록. 이날만 830억원의 자금이 들어오며 6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보였음. 채권형펀드에는 이달 들어서만 2조5,19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음.
LG전자,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노린다	LG전자는 21일 실적 IR을 통해 2분기 매출(글로벌 기준)은 전분기(12조8,530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2분기 예상 매출은 14조1,300억원대. 과거 분기 실적을 살펴볼 때 14조원 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는 것이 LG전자 설명. LG전자는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돼 선진국 등 시장 성장 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분기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등 비용 절감 활동과 함께 신흥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공략하겠다는 계획.
中, 대출 통제 나선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의 한 고위 관계자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자칫 과잉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신용 공급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 관계자는 이어 이번 통제가 자본시장이나 은행 예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의 공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 경기부양책 등 실질 경제로 직접 유입되는 유동성의 안정적인 공급은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
유로 반등, 독일 지표 호전	독일 경제 지표 호전으로 유로화 가치가 반등. 2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24분 현재 달러/유로 환율은 전날에 비해 0.28센트(0.21%) 상승(달러가치 하락)한 1.2948달러를 기록. 독일의 ZEW유럽경제연구센터는 지난달 경기신뢰지수가 근 2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발표.
글로벌 금융기관 손실 4조달러 상회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한 2007년부터 오는 2010년말 기간중 글로벌 금융권이 입게될 손실규모가 4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업종별로는 은행권 손실이 2조5,000억달러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험은 3,000억달러,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이 1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IMF는 은행섹터의 경우엔 손실중 이미 1조달러를 상각한 상황이라고 발표.
BOJ, 日 성장률 전망 -3~-5%로 하향 고려	일본중앙은행(BOJ)이 2009년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5%로 또 다시 하향할 전망이라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BOJ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경제활동 및 물가 전망에서 최근 생산 부진을 감안해 성장률 하향을 고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